

#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리터러시와 활용 역량 연구

백승주<sup>†</sup>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Generative AI Literacy and Use Competenc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eungjoo Baek<sup>†</sup>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Korean language teachers' generative AI literacy and competence development within a technology acceptance framework. Drawing on survey data from 156 teachers, the study analyzes usage patterns and the perceptual structure underlying AI integration. Although 75.6% reported monthly use, engagement remained largely introductory, centered on text-based material produc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dentified three latent dimensions: perceived instrumental utility, perceived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usage self-efficacy (cumulative variance: 74.4%). One-way ANOVA revealed that perceived instrumental utility and self-efficacy varied significantly by proficiency level, while perceived educational effectiveness remained stable across groups, functioning as a pre-formed normative belief independent of experi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perceived instrumental utility most strongly predicted teachers' intention to develop AI competence ( $\beta=.494$ ,  $p<.001$ ,  $R^2=.303$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stainable AI integr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ends less on cultivating abstract educational value beliefs than on enabling teachers to experience immediate, practical utility—making hands-on, context-specific training the most effective entry point for competence development.

**Keywords:** generative AI, AI literacy,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eacher professionalism, Korean language education

---

## 1. 서 론

한국어 교육은 현재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

<sup>†</sup> Corresponding author: haaaaaapy@snu.ac.kr



생성형 AI)의 등장은 언어 교육의 교수·학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ChatGPT, Gemini, Claude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맥락을 이해한 텍스트 생성, 이미지 제작, 음성 합성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제한된 자동화 기능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 다른 기술적 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한국어교육 현장에 다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수준과 관심사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 자료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정교한 개인화 학습 환경이 구현될 가능성이 열렸다. 교사 측면에서도 교안 작성, 평가 문항 개발, 피드백 제공, 행정 업무 처리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텍스트 생성과 시각 자료 제작 기능은 수업 준비 과정에서 즉각적인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교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교육적 확산은 단순히 기술의 도입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적 도구가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주체의 역량과 인식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성형 AI는 그 자체로 교육 효과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사가 어떠한 교수 신념과 교육적 판단 아래 이를 설계하고 통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매개적 기술이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실질적 안착 여부는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리터러시와 활용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성형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술적 조작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정확성과 교육적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어 교수·학습 원리에 부합하는 프롬프트를 설계하며 학습자의 수준과 목표에 맞추어 AI 결과물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저작권, 정보 왜곡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포괄한다. 즉, 생성형 AI 리터러시는 기술 숙련과 교육적 전문성이 통합된 확장된 교사 전문성의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원들이 이를 어떠한 인식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지와 그러한 인식이 향후 활용 역량 강화 의도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존 선행 연구가 주로 기술 수용 여부나 사용 빈도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생성형 AI가 교사 전문성 담론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교원 1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첫째,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의 활용 실태와 활용 영역을 분석하고 둘째,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인식이 어떠한 요인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탐색하며 셋째, 이러한 인식 요인이 향후 활용 역량 강화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전문성과 교육적

가치 인식의 문제로 재조명하고 향후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AI 리터러시와 생성형 AI 리터러시의 개념

AI 리터러시(AI literacy)는 인공지능 기술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Long & Magerko(2020)는 AI 리터러시를 ‘개인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협업하며 온라인·가정·직장 등 다양한 맥락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집합’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17개의 핵심 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AI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핵심 물음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인공지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인간은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다섯 차원으로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AI 리터러시 연구의 기초적 준거 틀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AI 리터러시의 개념은 기술에 대한 지식(knowledge)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역량(competence)이 결합된 복합적 구성체로 이해된다. Chiu(2024)는 리터러시를 ‘무엇을 알고 있는가’의 지식 차원으로, 역량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의 자신감 및 실행 차원으로 구분하면서 K-12 AI 교육 맥락에서는 두 차원이 통합적으로 함양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AI 리터러시가 단순한 정보 습득에 머물지 않고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창의적 적용 능력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ChatGPT, Claude, Gemini 등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존의 AI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Ng 외(2024)는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기존의 AI 리터러시 구조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프롬프트 설계 능력, 결과물 비판적 평가, 생성형 AI에 고유한 윤리적 문제 인식 등을 포함하는 ‘생성형 AI 리터러시’ 개념의 독자적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기존의 규칙 기반 AI 시스템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물 생성 메커니즘을 가지며 그에 따른 정보 왜곡·편향·저작권 등의 문제가 새로운 리터러시 요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교육 맥락에서 AI 리터러시는 교사 전문성(teacher professionalism)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재위치되고 있다. Kasneci 외(2023)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과 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교육적 적절성을 판단하고 이를 수업 설계에 통합하는 역할이 핵심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AI 리터러시가 교사 전문성의 확장된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국내외 교원 연수 정책 및 교사 교육 연구에서도 점차 공유되고 있다.

## 2.2. 교사의 AI 리터러시 선행 연구

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AI 인식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 수용 의도, 교수법과의 정합성, 자기효능감을 중심 변인으로 다루어 왔다. AI-Abdullatif(2024)는 고등교육 맥락에서 교사의 생성형 AI 수용을 분석하면서, AI 리터러시와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수준이 '지각된 신뢰도'와 결합하여 활용 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AI 리터러시가 높은 교사일수록 생성형 AI를 교수·학습 설계에 비판적·창의적으로 통합하는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AI 리터러시와 교수 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시사한다. Yim(2024)은 초등 AI 리터러시 교육의 맥락에서 교사의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 기반 AI 교육 도구 수용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사들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모두에서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기술적 지식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AI의 교육적 가능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실제 수업 설계에 이를 적용할 기술적 역량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후술할 '인지적 수용과 행동적 자신감 간의 간극'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교사 인식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주로 한국어 교원의 AI 도구 사용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질적 분석(Kang, 2025; Park et al., 2025; Ryu et al., 2025)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수준과 활용 역량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중 Ahn & Park(2025)은 익숙도가 AI 사용 빈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나 사전에 설정된 개별 변인으로 현재의 사용 빈도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인식의 잠재 구조는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TAM을 이론적 준거로 삼아 교원의 AI 인식 구조를 요인 분석으로 먼저 규명하고, 도출된 요인이 향후 역량 강화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숙련도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논의를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확장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총 156명의 한국어 교원의 설문 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40대가 68명(43.6%)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며, 50대가 53명(34.0%)으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는 27명(17.3%)이었고 20대는 5명(3.2%), 60대 이상은 3명(1.9%)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 경력 측면에서는 ‘10년 이상’이 47명(3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은 31명(19.9%), ‘1년 이상~3년 미만’은 30명(19.2%), ‘아직 없음’은 8명(5.1%)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원이 과반을 차지하여 본 연구의 표본은 비교적 숙련된 한국어 교원 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방식에서는 ‘오프라인 중심’이 116명(74.4%)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혼합형’은 24명(15.4%), ‘온라인 중심’은 16명(10.3%)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이 완전한 온라인 환경이 아닌 전통적 대면 수업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인구학적 정보(N = 156)

| 연령대    |           | 한국어 교육 경력      |           | 수업 방식   |            |
|--------|-----------|----------------|-----------|---------|------------|
| 20대    | 5(3.2%)   | 아직 없음          | 8(5.1%)   | 오프라인 중심 | 116(74.4%) |
| 30대    | 27(17.3%) | 12개월 미만        | 19(12.2%) | 온라인 중심  | 16(10.3%)  |
| 40대    | 68(43.6%) | 1년 이상 ~ 3년 미만  | 30(19.2%) | 혼합형     | 24(15.4%)  |
| 50대    | 53(34%)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13.5%) |         |            |
| 60대 이상 | 3(1.9%)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1(19.9%) |         |            |
|        |           | 10년 이상         | 47(30.1%) |         |            |

### 3.2. 설문 도구 구성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설문 응답 자료는 2025년 10월에 연구자가 진행한 온라인 강의인 「한국어 교육과 생성형 AI: 최신 연구 경향과 실제 도구의 활용」에 참여한 한국어 교원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은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소요 시간은 약 3-5분이었다.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향후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설문 도구는 선행 연구의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생성형 AI 핵심 인식 문항(10문항)은 Davis(1989)의 기술 수용 모델(TAM)과 Venkatesh 외(2003)의 통합 기술 수용 이론(UTAUT)을 주요 준거로 삼아 구성하였다. TAM은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의 두 핵심 인식 차원이 기술 수용 태도와 실제 사용 행동을 예측한다고 제안하며 UTAUT는 이를 성과 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의 네 변인으로 확장한다. 이에 더해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기술적 문제 상황에서의 자기 해결 가능

성 인식을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생성형 AI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혁신적 도구로 인식될 때 수용 의도가 강화된다는 최근 연구(Ayanwale 외, 2024)의 논의를 반영하여 교육 혁신 기대 관련 문항도 설계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다음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생성형 AI 사용 빈도 및 사용 수준을 묻는 문항(2문항)으로 AI 도구를 어느 빈도와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ChatGPT, Gemini 등 대표적인 생성형 AI 도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어 교육, 행정, 전문성 개발 영역에서의 현재 활용과 향후 활용 의향을 묻는 문항(10문항)으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 언어 기능 영역별 활용 여부와 확장 의도를 파악한다. 셋째,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으로, TAM의 지각된 유용성(Q3-1~Q3-3, Q3-8), 지각된 사용 용이성(Q3-4~Q3-5), 자기효능감(Q3-6~Q3-7), 조직적 지지(Q3-9), 그리고 향후 활용 의지(Q3-10)의 구성 개념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넷째, AI 활용 과정에서의 우려 및 어려움을 묻는 개방형 문항(2문항), 다섯째,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8문항)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TAM 기반 이론 틀을 명시적 설계 준거로 삼음으로써 생성형 AI 인식 문항들이 단순한 만족도나 숙련도 측정이 아니라 기술 수용과 역량 강화 의지를 예측하는 구조적 인식 체계를 반영하도록 의도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생성형 AI 활용 실태

한국어교원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AI 도구 사용 빈도 및 AI 도구 사용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 숙련도로 스스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먼저 AI 도구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매우 자주 사용한다(주 3회 이상)’는 응답이 68명(4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끔 사용한다(월 1~2회)’는 50명(32.1%),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관심은 있다’는 32명(20.5%)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명(3.8%)에 그쳤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75.9%가 월 1회 이상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성형 AI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미 실질적인 교수 지원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우 자주 사용’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은 한국어 교원에게 생성형 AI 활용이 일회적인 실험 단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용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표 2.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

| 현재 AI 도구 사용 빈도    |            | AI 도구 사용 수준       |            |
|-------------------|------------|-------------------|------------|
| 매우 자주 사용(주 3회 이상) | 68명(43.6%) | 고급(수업 자료 제작, 자동화) | 8명(5.1%)   |
| 가끔 사용(월 1-2회)     | 50명(32.1%) | 중급(프롬프트 활용)       | 58명(37.2%) |
|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관심 있음 | 32명(20.5%) | 초급(기본 검색)         | 82명(52.6%) |
| 전혀 사용하지 않음        | 6명(3.8%)   | 활용 경험 없음          | 8명(5.1%)   |

교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AI 사용 수준은 ‘초급(기본적 검색 정도)’이 82명(5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을 구사하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얻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급(프롬프트 어느 정도 활용 가능)’ 이상의 응답자도 상당수 존재하며(58명, 37.2%) 소수의 ‘고급’ 수준 응답자 8명(5.1%)은 AI를 활용한 수업 자동화나 복합적 자료 제작까지 시도하고 있어 교원 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어 교원의 AI 도구 사용 빈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활용 수준은 주로 기초적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도화된 활용 역량은 아직 일부 교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적 교수 역량으로의 체계적 전환은 아직 진행 중인 과도기적 시점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생성형 AI의 활용 영역을 현재 사용과 향후 활용 의향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이미지·삽화 제작’(86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향후 활용 의향 있음’ 응답이 ‘현재 사용 중’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업 자료 제작 과정에서 시각적 보조 자료를 생성하는 기능이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행정 업무(이메일 작성 등)’(40명), ‘평가 문항 제작’(35명), ‘읽기 활동(지문 제작 등)’(34명), ‘쓰기 지도(첨삭 등)’(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영역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 기능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외국어 교육 분야의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언어 교사들의 텍스트 생성 기능에 대한 활용 빈도가 다른 기능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Mabuan, 2024; Rahimi & Sevilla-Pavó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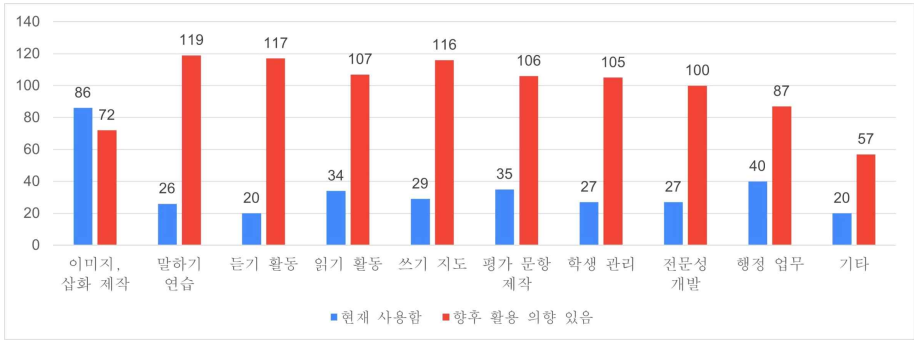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및 향후 생성형 AI 활용 영역

반면, ‘말하기 연습(롤플레이, 발음 등)’(26명)과 ‘듣기 활동(음성 생성 등)’(20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음성 생성, 즉각적인 상호작용, 발음 피드백 등 멀티모달 기능을 포함하는 AI 영역이 아직 한국어 교실 맥락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안정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말하기 연습’ 영역에는 롤플레이 구성, 대화문 생성, 발음 연습 지원 등 상호작용적 요소가 포함되며, ‘듣기 활동’ 영역은 음성 합성, 상황별 대화 음원 제작 등 기술적 활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AI 리터러시 수준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활용 의향에서는 ‘말하기 연습’(117명) 영역뿐만 아니라 ‘쓰기 지도’(116명), ‘읽기 활동’(107명), ‘평가 문항 제작’(106명), ‘학생 관리(추천서 작성, 피드백 제공 등)’(105명)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현재 활용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확장 의향을 보였다. 이는 교원들이 생성형 AI를 단순 보조 도구로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언어 기능 중심 수업 설계와 학습자 지원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성 개발(논문 작성 보조 등)’ 영역에서도 높은 향후 활용 의향(100명)이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생성형 AI가 수업 실행 단계뿐 아니라 연구 활동, 자료 개발, 자기주도적 전문성 향상 등 교사 전문성의 다양한 층위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4.2.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한국어 교원의 인식 특성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은 유용성, 용이성, 자기효능감 및 조직 문화 등 다차원적인 요소를 포함한 10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원들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먼저 ‘향후 활용 능력 확대 계획( $M=4.41$ ,  $SD=0.75$ )은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어 교원들이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인식

( $M=4.15$ ,  $SD=0.84$ )과 ‘전문성 향상 기여 인식( $M=4.13$ ,  $SD=0.74$ )’ 역시 높은 평균을 보여 생성형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업 준비 시간 단축 인식( $M=3.99$ ,  $SD=0.99$ )’과 ‘학습자 성취·참여 기여 인식( $M=3.99$ ,  $SD=0.80$ )’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생성형 AI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수법과의 조화 가능 인식( $M=3.82$ ,  $SD=0.94$ )’은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나 유용성 관련 문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특히 ‘문제 발생 스스로 해결 가능 인식( $M=3.09$ ,  $SD=1.11$ )’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사용 부담 없음( $M=3.41$ ,  $SD=1.07$ )’과 ‘기능의 직관성 인식( $M=3.46$ ,  $SD=0.96$ )’ 역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생성형 AI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는 일정 부분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직문화의 지지 인식( $M=3.51$ ,  $SD=1.08$ )’은 비교적 큰 표준편차와 함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별 환경 차이에 따른 인식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 생성형 AI 활용 인식 특성의 기술통계

| 문항   | <i>M</i> | <i>SD</i> |
|--|----------|-----------|
| Q3-1. 생성형 AI는 수업 준비(자료·문항·아이디어) 시간을 줄여준다.      | 3.99     | 0.99      |
| Q3-2. 생성형 AI는 한국어 학습자의 성취, 참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 3.99     | 0.80      |
| Q3-3. 생성형 AI는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 4.13     | 0.74      |
| Q3-4. 생성형 AI는 배우기 쉽고 사용이 부담스럽지 않다.             | 3.41     | 1.07      |
| Q3-5. 생성형 AI는 기능이 직관적이라 수업에 적용하기 쉽다.           | 3.46     | 0.96      |
| Q3-6. 생성형 AI를 기존 교수법과 조화시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82     | 0.94      |
| Q3-7. 생성형 AI 활용 중 문제/요류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 3.09     | 1.11      |
| Q3-8. 생성형 AI는 한국어 교육 혁신에 의미 있는 도구라고 본다.        | 4.15     | 0.84      |
| Q3-9. 우리 센터의 동료, 조직 문화는 생성형 AI 활용을 지지, 기대한다.   | 3.51     | 1.08      |
| Q3-10. 향후 1년 내에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 4.41     | 0.75      |

정리하자면 한국어 교원들은 생성형 AI의 교육적 유용성과 혁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활용 확대 의지 역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 해결 역량과 사용의 용이성, 그리고 조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활용이 양적 확산 단계를 넘어 질적 심화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의 우려를 묻는 개방형 문항 분석 결과 한국어 교원의 인식은 단선적인 긍정 평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응답 내용은 크게 다섯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첫째, 생성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이다. 일부 교원은 “AI 답변의 사실 오류를 즉각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거나 “그렇듯하지만 부정확한 설명이 수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여 정보 왜곡 가능성에 대한 경계 의식을 드러냈다. 둘째, 학습자의 과도한 의존과 사고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나 “과제 수행의 진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평가의 공정성과 학업 윤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작문 과제 및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넷째, 저작권 및 데이터 보안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교원은 생성형 AI의 확산이 교사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 4.3.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활용 인식 구조 분석

앞서 4.2에서 살펴본 10개 인식 문항이 실제로 어떠한 내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Q3-10(향후 활용 계획)을 제외한 9개 문항을 투입하였으며 Q3-10은 이후 4.4절에서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성분 추출 후 Varimax 회전을 적용하였고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 설명 분산은 74.4%로 나타났다. 요인 부하량 .40 이상을 유의미한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활용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세 차원으로 구조화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Q3-1(수업 준비 시간 단축), Q3-4(사용 용이성), Q3-5(기능의 직관성), Q3-8(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인식)이 높은 부하를 보인 요인으로 생성형 AI가 교수·학습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도구적 유용성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alpha=.818$ ,  $M=3.75$ ). 이 요인은 기술 수용 모델(TAM)의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사용 용이성 개념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지만 단순한 효율성 평가를 넘어 교육 혁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교육 맥락적으로 확장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요인에 포함된 Q3-4와 Q3-5는 요인 3(사용 자기효능감)에도 일정 부분 교차 적재(.468, .616)를 보였는데 이는 사용 용이성과 기능 직관성에 대한 판단이 도구의 실용적 가치 인식과 실제 운용 자신감이 결합된 복합적 인식임을 시사한다.

표 4. 생성형 AI 활용 인식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 요인         | 문항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공통성  |
|------------|----------------------|---------------|---------------|---------------|------|
| 도구적 유용성 인식 | Q3-1. 수업 준비 시간 단축    | .649*         | .551          | .087          | .732 |
|            | Q3-4. 사용 용이성 및 부담 없음 | .735*         | .048          | .468          | .761 |
|            | Q3-5. 기능의 직관성        | .667*         | .120          | .616          | .838 |
|            | Q3-8. 교육혁신 도구로서의 인식  | .675*         | .539          | .055          | .749 |
| 교육적 효과 인식  | Q3-2. 학습자 성취 · 참여 기여 | .212          | .858*         | .176          | .813 |
|            | Q3-3. 교원 전문성 향상 기여   | .093          | .869*         | .256          | .830 |
| 사용 자기효능감   | Q3-6. 기존 교수법과의 조화    | .412          | .343          | .571*         | .613 |
|            | Q3-7. 문제 발생 시 자기 해결  | .086          | .190          | .879*         | .816 |
|            | Q3-9. 조직 문화의 지지      | .256          | .261          | .644*         | .548 |
|            | 설명 분산(%)             | 24.0          | 25.8          | 24.6          | 74.4 |
|            | 누적 설명 분산(%)          | 24.0          | 49.8          | 74.4          |      |
|            | Cronbach's $\alpha$  | .818          | .834          | .744          |      |
|            | 요인 구성 문항 M (SD)      | 3.75<br>(.78) | 4.06<br>(.71) | 3.47<br>(.85) |      |

두 번째 요인은 Q3-2(학습자 성취, 참여 기여)와 Q3-3(교원 전문성 향상 기여)로 구성되었으며 생성형 AI가 교수 · 학습의 질적 향상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여 ‘교육적 효과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alpha=.834, M=4.06$ ). 두 문항은 각각 학습자와 교사라는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생성형 AI의 교육적 기여에 대한 신뢰라는 공통된 인식 기반을 공유한다. 세 요인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이 요인은 한국어 교원들이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요인은 Q3-6(기존 교수법과의 조화), Q3-7(문제 발생 시 자기 해결), Q3-9(조직 문화의 지지)로 구성되었으며 생성형 AI를 실제 수업 맥락에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환경적 조건을 함께 반영하여 ‘사용 자기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alpha=.744, M=3.47$ ). 이 요인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과 맥을 같이하며 실제 도구 운용 경험에서 비롯되는 내적 자신감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조직 문화 문항(Q3-9)이 이 요인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한국어 교원의 자기효능감이 개인 내부의 심리적 요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도적, 환경적 조건과 결합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인 평균을 비교하면 ‘교육적 효과 인식’( $M=4.06$ )과 ‘도구적 유용성 인식’( $M=3.75$ )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사용 자기효능감’( $M=3.47$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교원들이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와 도구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 기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수업 맥락에서 능숙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교원 디지털 역량 연구에서 보고된 ‘인지-실행 간 간극’과 유사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Scherer 외, 2019).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요인 구조는 기존 기술 수용 이론과 부분적으로 정합성을 보이면서도 도구적 유용성과 교육적 효과 기대가 분리된 독립 차원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어 교원들에게 생성형 AI는 ‘쓰기 편리한 도구’로서의 가치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별개의 인식 차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생성형 AI 활용이 단순한 기술 숙련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전문성 인식과 교육적 가치 판단이 결합된 다층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AI 통합 설계 능력이 교사 전문성의 핵심으로 제시되는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Kasneci 외, 2023).

이상과 같이 확인된 인식 구조는 한국어 교원 집단 전체의 평균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활용 경험과 숙련도 수준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자기효능감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활용 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 구조가 한국어 교원의 AI 활용 숙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AI 활용 숙련도 수준을 ‘경험 없음’, ‘초급’, ‘중급’, ‘고급’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156명이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AI 활용 숙련도 수준에 따른 요인 구조 분석 결과

| AI 활용 숙련도 수준 | N  | 요인 1 M(SD)<br>도구적 유용성 인식 | 요인 2 M(SD)<br>교육적 효과 인식 | 요인 3 M(SD)<br>사용 자기효능감 |
|--------------|----|--------------------------|-------------------------|------------------------|
| 고급           | 8  | 4.06(.68)                | 4.31(.46)               | 4.08(.73)              |
| 중급           | 58 | 3.91(.72)                | 4.08(.61)               | 3.58(.80)              |
| 초급           | 82 | 3.64(.80)                | 4.04(.76)               | 3.35(.87)              |
| 활용 경험 없음     | 8  | 3.33(.71)                | 3.78(1.00)              | 3.19(.75)              |
| <i>F</i>     |    | 2.709*                   | 0.842                   | 2.679*                 |
| $\eta^2$     |    | .050                     | .016                    | .050                   |

\*  $p < .05$ .

분석 결과, 세 요인 중 ‘도구적 유용성 인식’( $F=2.709, p=.047, \eta^2=.050$ )과 ‘사용 자기효능감’( $F=2.679, p=.049, \eta^2=.050$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eta^2=.050$  수준으로, 작은 효과(small effect)와 중간 효과(medium effect)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숙련도 수준이 두 인식 차원 모두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교육적 효과 인식’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0.842, p=.473$ ).

AI 활용 수준과 각 요인 점수 간의 관계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Spearman 상관분석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도구적 유용성 인식’( $\rho=.259, p=.001$ )과 ‘사용 자기효능감’( $\rho=.214, p=.007$ ) 모두 활용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교육적 효과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ho=.076, p=.344$ ). 이는 활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도구의 실용적 유용성을 체감하는 정도와 실제 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함께 상승하는 반면 생성형 AI가 학습자와 교원에게 교육적으로 기여한다는 믿음은 활용 수준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수용 이론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TAM 및 UTAUT 모형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모두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지만(Davis, 1989; Venkatesh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효과 인식이 숙련도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이미 형성된 신념’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이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담론이 이미 한국어 교원 집단 전반에 공유되어 있어 실제 사용 경험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교육적 기대가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도구적 유용성 인식과 사용 자기효능감은 경험 축적과 함께 상승하는 전형적인 ‘실행 기반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제시하는 ‘숙달 경험’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사용 경험이 누적될수록 도구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체감하고 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며 특히 고급 집단에서 두 요인 모두 현저히 높은 평균을 보인다는 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에 도달했을 때 인식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교원을 위한 AI 연수 전략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원 집단은 이미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연수의 초점을 AI의 교육적 가치를 설득하는 데 두기보다는 실제 도구 활용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 설계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단순한 기능 소개를 넘어 교수·학습 목표와 연계된 프롬프트 설계, 오류 수정 사례 분석, 실제 수업 적용 후 피드백 공유 등 경험 기반 접근이 도구적 유용성 인식과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4.4. 생성형 AI 활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분석

4.3절에서 도출된 세 가지 인식 요인과 AI 활용 숙련도가 한국어 교원의 향후 AI 활용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Q3-10(‘향후 1년 내에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늘릴 계획이다’)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도구적 유용성 인식’(요인 1), ‘교육적 효과 인식’(요인 2),

‘사용 자기효능감’(요인 3), 그리고 AI 활용 숙련도(0~3점 서열 척도)를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예측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네 예측 변수 모두 종속 변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가운데 ‘도구적 유용성 인식’이 가장 강한 상관( $r=.522, p<.001$ )을 나타냈으며 ‘교육적 효과 인식’( $r=.387, p<.001$ ), ‘사용 자기효능감’( $r=.293, p<.001$ ), AI 활용 숙련도( $r=.225, p=.005$ )가 뒤를 이었다. 또한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분산 팽창계 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가 2.11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생성형 AI 활용 의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예측 변수            | B      | SE    | $\beta$ | $t$    | $p$      |
|------------------|--------|-------|---------|--------|----------|
| (절편)             | 2.192  | 0.315 |         | 6.952  | <.001    |
| 요인 1. 도구적 유용성 인식 | 0.478  | 0.095 | .494    | 5.027  | <.001*** |
| 요인 2. 교육적 효과 인식  | 0.159  | 0.089 | .151    | 1.784  | .076     |
| 요인 3. 사용 자기효능감   | -0.123 | 0.081 | -.139   | -1.512 | .133     |
| AI 활용 숙련도        | 0.142  | 0.077 | .129    | 1.843  | .067     |

\*\*\*  $p<.001$ .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4, 152)=16.531, p<.001$ ) 네 개의 예측 변수가 향후 AI 활용 의지 분산의 30.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정된  $R^2=.285$ ).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구적 유용성 인식’( $\beta=.494, p<.001$ )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직관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 도구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향후 AI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교육적 효과 인식’( $\beta=.151, p=.076$ ), ‘사용 자기효능감’( $\beta=-.139, p=.133$ ), AI 활용 숙련도( $\beta=.129, p=.067$ )는 단순 상관에서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자기효능감’의 표준화 계수가 부적(-) 방향을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도구적 유용성 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높은 상관을 가지는 상황에서 도구적 유용성 인식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 자기효능감의 독립적 기여가 상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보다는 두 변인의 개념적 중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교원의 향후 AI 역량 강화 의지가 기술적 자신감이나 교육적 가치 신념보다 생성형 AI의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유용성 체감에 의해 가장 강하게 동기화됨을 시사한다. 즉, AI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수업 준비 부담이 줄고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 배우고 싶다는 의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안재린 & 박정아, 2025)가 AI 사용 빈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익숙도’를 지목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하며 현재의 실제적 활용 경험이 미래의 역량 개발 동기를 이끄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 교원 대상 AI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도구 조작 방법의 숙달이나 AI의 교육적 가치 설득에 앞서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습 경험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직접적인 도구 활용 경험을 통해 실용적 가치를 체감하게 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역량 개발 의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와 인식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 요인이 향후 역량 강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이미 상당 수준 확산되어 일상적인 교수 지원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의 질적 수준과 범위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양적 확산의 과도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원들은 이미지·삽화 제작, 텍스트 기반 자료 제작 및 행정 업무 처리 등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높은 활용 빈도를 보였으나 실시간 상호작용이나 음성 기반의 멀티모달 활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들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언어 기능 전반과 전문성 개발 영역까지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강한 확장 지향적 의지를 나타내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활용 인식은 ‘도구적 유용성 인식’, ‘교육적 효과 인식’, ‘사용 자기효능감’의 세 차원으로 구조화되었다. 이 중 ‘교육적 효과 인식’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반면, ‘사용 자기효능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교원들이 생성형 AI가 학습자와 교원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은 강하게 공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수업 맥락에서 능숙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지-실행 간 간극’은 교원 디지털 역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온 구조적 특성으로(Scherer 외, 2019), 생성형 AI 활용이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를 넘어 교사 전문성의 질적 전환 문제임을 시사한다.

AI 활용 숙련도에 따른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구적 유용성 인식’과 ‘사용 자기효능감’은 숙련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실행 기반 인식’의 특성을 보인 반면, ‘교육적 효과 인식’은 숙련도와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기여에 대한 신념이 직접적인 사용 경험에 선행하여 형성되는 일종의 규범적 기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관적 규범’의 개념과 맥을 같이하는 이 결과는, 생성형 AI에 대한 긍정적 사회 담론이

이미 한국어 교원 집단에 내면화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구적 유용성 인식'이 향후 역량 강화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업 준비 시간 단축, 기능의 직관성,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실용적 가치를 체감하는 인식이 강할수록 AI 역량을 더 키우겠다는 동기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기술 수용 이론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 의도의 핵심 예측 변인으로 제시된 것과 일치하면서도(Davis, 1989) 단순한 효율성 인식을 넘어 혁신적 도구로서의 가치 체감이 결합된 복합적 유용성 인식이 동기 형성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선행 연구(Ahn & Park, 2025)에서는 AI 사용 빈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익숙도를 지목하였는데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역량 강화 의지로 설정하고 인식의 잠재 구조를 먼저 요인 분석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의 논의를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확장하였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반면 '교육적 효과 인식'과 '사용 자기효능감'은 단순 상관계수에서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독립적 예측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신념이 이미 집단 전반에 공유된 배경 신념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기의 변별적 예측 요인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반면 도구의 실용적 유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경험이 지속적 역량 개발 의지를 이끄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연수 및 정책 설계 방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연수의 출발점을 '즉각적 유용성 체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적 유용성 인식이 역량 강화 의지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교원이 생성형 AI를 실제 수업 준비나 자료 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 동기 형성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단순한 도구 소개를 넘어 한국어 교육 맥락에 특화된 프롬프트 बैं크, 수업 자료 제작 실습, 검증된 활용 사례 공유 플랫폼 등 실제 교수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생성형 AI 연수는 도구 사용법 전달을 넘어 '비판적 생성형 AI 리터러시' 강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AI 결과물을 교육적으로 평가하고 재구성하며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윤리적 문제를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Ng 외(2024)가 제안한 생성형 AI 리터러시 개념이 단순한 기술 숙련을 넘어 비판적 평가와 윤리적 판단까지 포괄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원의 연수 목표 역시 도구 운용 능력과 비판적 리터러시를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개방형 응답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교원들은 AI 생성 결과의 신뢰성, 학습자의 과도한 의존, 평가 공정성, 저작권 문제 등 다층적 윤리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전문적 판단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교실 안팎에서 학습자의 과제 수행과 자기주도 학습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교수학습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 즉 학습자의 AI 활용 양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적절

한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 역시 한국어 교원의 생성형 AI 리터러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차원의 정책 지원과 평가 체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직 문화의 지지가 사용 자기효능감 요인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개인 교원의 역량 개발이 기관 차원의 지지 환경과 분리되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AI 도구 접근성 지원, 활용 사례의 제도적 인정 및 AI 활용 과정을 반영한 과정 중심 평가 기준 마련은 한국어 교원의 개인적 노력을 교육 혁신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생성형 AI 특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표집에 기반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한국어 교원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강 참여자라는 특성상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과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표본에 과대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식 요인의 평균 수준을 상향 편향시켰을 수 있다. 또한 설문 자료의 특성상 인식과 활용 의도 간의 중단적 인과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제약을 지닌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의 한국어 교원을 포함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중단적 설계와 함께 조직 문화와 제도적 지원 체계가 교원의 AI 활용 역량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hn, J. R., & Park, J. A. (2025). Korean language instructors' use and perceptions of generative AI: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Teacher Education Research*, 64(3), 340-357.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l-Abdullatif, A. M. (2024). Modeling teachers' accepta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use in higher education: The role of AI literacy, intelligent TPACK, and perceived trust. *Education Sciences*, 14(11), 1209.
- Ayanwale, K., Adelana, O., & Odufuwa, T. (2024). Exploring STEAM teachers' trust in AI-based educational technologi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pproach. *Discover Education*, 3(1), 1-2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 Chiu, T. K. F. (2024). What are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 and competency?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support them. *Computers and Education Open*, 6, 100171.
-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 Kang, S. Y. (2025). A qualitative study on Korean language teachers' experiences with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 107, 479-505.
- Kasneji, E., Seßler, K., Küchemann, S., Bannert, M., Dementieva, D., Fischer, F., Gasser, U., Groh, G., Günemann, S., Hüllermeier, E., Krusche, S., Kutyniok, G., Michaeli, T., Nerdel,

- C., Pfeffer, J., Poquet, O., Sailer, M., Schmidt, A., Seidel, T., Stadler, M., Weller, J., Kuhn, J., & Kasneci, G. (2023). ChatGPT for good? 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educ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3*, 102274.
- Long, D., & Magerko, B. (2020). What is AI literacy? Competencies and design considerations. In *Proceeding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16). ACM.
- Mabuan, R. A. (2024). ChatGPT and ELT: Exploring teachers' vo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in Education, 7*(1), 128-153.
- Ng, D. T. K., Luo, W., Chan, H. M. Y., & Chu, S. K. W. (2024). Design and validation of the AI literacy questionnaire: The affective, behavioural, cognitive and ethical approach.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55*(3), 955-981.
- Park, S. U., Kim, N. R., & Min, K. A. (2025). A study on the Korean teachers' perceptions on the educational application of generative AI.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77*, 27-62.
- Rahimi, A., & Sevilla-Pavón, A. (2024). The role of ChatGPT readiness in shaping language teachers' language teaching innovation and meeting accountability: A bisymmetric approach.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7*, 100258.
- Ryu, S. U., Park, A. H., & Cho, Y. K. (2025). A study on Korean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of AI utiliz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Language and Culture, 21*(3), 117-145.
- Scherer, R., Siddiq, F., & Tondeur, J. (2019).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 meta-analyti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explaining teachers'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Computers & Education, 128*, 13-35.
-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 Davis, F. D.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7*(3), 425-478.
- Yim, I., & Wegerif, R. (2024). Teachers' perceptions, attitudes, and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educational learning tools: An exploratory study on AI literacy for young students. *Future in Educational Research, 2*, 318-345.

백승주

전임강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37동 101호

E-mail: haaaaaapy@snu.ac.kr

접수일자 : 2026. 2. 25

수정본 접수 : 2026. 3. 22

게재결정 : 2026. 3. 25